

[번역]

사제직으로 부름 받은 평신도* — 개혁된 전례 거행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



첸티나 밀리텔로(Cettina Militello)

윤 종 식 옮김

[가톨릭대학교 전례학 교수·신부]

- I. 사제직으로의 부르심
 - 1. 표현의 성서적·신학적 가치
 - 2. 역사 안에서 사제직으로 불린 백성의 신학적 지위에 대한 공동체의 충실과 불충실
- II. 전례 개혁에 대한 공의회 요청과 수용
 - 1. “의식적이고 능동적이고 완전한” 참여
 - 2. 『로마 미사 경본』의 개혁
 - 3. 전례문에서의 예시
- III. 개혁된 거행에 대한 인식을 위해
 - 1. 새로운 공동 모델
 - 2. 은사와 직무의 일치
 - 3. 예언, 찬양, 봉사의 광범위한 증진

여기서 다룰 주제는 매우 함축된 두 가지 표현에서 유래한다. 첫 번째는 하느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역사이고, 두 번째는 ‘거행자’인 하느님 백성의 지위를 확인하고 시행하는 새로운 계획

* 이 글은 2024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번역문임.

Cettina Militello, “Convocati a compiere il servizio sacerdotale”, in *I laici nella liturgia*, Edizioni O. R., 1987, pp.44~71. 저자인 첸티나 밀리텔로는 이탈리아의 여성 철학자이자 평신도 신학자이다. 1975년에 시칠리아 신학부(팔레르모)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 후 그녀는 교황청립 성 안셀모 대학의 상임 교수가 되었고, 다른 학술 센터에서 객원 교수를 지냈다. 현재 그녀는 교회의 평신도와 여성 문제를 다루는 “Costanza Scelfo” 연구소를 이끌고 있으며, 교황청립 마리아눔 대학의 ‘여성과 그리스도교’ 학과장을 맡고 있다. 좀 오래된 이 글을 번역한 이유는 ‘시노달리타스’ 주제에서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평신도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개념이 전례적 차원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으며, 그 현실적 문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에 대한 것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교와 예배 회중은 그 지위와 쇄신을 다양하게 해석해 왔다. 자신의 정체성으로 돌아가려는 지속적인 노력과 그 신학적 지위에 대한 충실한 자문은 순례 중인 공동체에 필요하다. 우선 여기서 다룰 과제들은 ‘사제직의 소명’을 받은 백성으로서 평신도 회중의 정체성, 그리고 전례 개혁에 대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의 요청과 수용, 그리고 적용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제적 백성으로서의 본성에 대해 더욱 온전히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하느님 백성의 감수성과 인식의 성숙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세 단계로 전개할 것이다. 첫째, 사제직의 부르심과 관련하여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공동체로부터 받아들여진 용어와 표현의 성서적·신학적 가치에 대한 연구이다. 둘째, 공의회 의 증언과 요구와 공의회 이후의 전례 개혁에서의 수용이다. 마지막으로 개혁된 거행에 대한 최종 제안이다.

I. 사제직으로의 부르심

1. 표현의 성서적·신학적 가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진 하느님 백성의 역사는 일련의 부르심으로 총체적으로 새겨져 있다. 구약과 신약의 맥락에서 백성의 부름, 소집, 선택은 구원의 역동성과 하나이며, 창조물인 인간의 변천 과정, 그 과정에 참여하고 인간이 된 육화 계획의 주인공, 구세주, 구원자인 하느님의 주도권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창조 그 자체가 하느님 말씀으로 구현된다는 것은 존재를 불러오는 것처럼 들린다. 그것은 그 자체로 봉사하라는 요청이다. 하느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실재와 관련하여 사람을 중개자로 삼으시며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한다. 태초부터 남자와 여자의 존재는 봉사와 임금의 직무로서, 우주와 역사와 관련하여 하느님의

주권을 중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집은 구원 역사의 주인공 각자의 특유한 기능을 지닌 목적지인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다. 그러나 소집은 무엇보다도 계약과 언약의 모든 회중, 다른 말로 하느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인식이 형성되는 순간이며, 그 후에 이 순간을 기념하게 된다. 부름 받은 회중, 행동하는 회중, ‘카알 야훼 *qahal*(קהל) *Jahve*(야훼의 부름 받은 이들), *ecclesia*는 그 표현이 무엇이든 간에,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이 찾아 나선 백성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 확인한다. 백성은 그들과 함께하는 하느님을 자신들의 하느님임을 확인하는 체험을 한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회중과 같이, 정화되고 구속된 하느님 백성의 지위를 역동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약은 이 모든 것을 보존하며 분명히 그리스도론적이고 성령론적인 강렬함을 부여한다. 새 백성은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고 어린양의 피로 승인된 계약의 상속자이며 사제적 백성이다. 탈출 19,6¹⁾을 다시 취하면서 잘 알려져 있고 이미 언급된 본문들은 사제적 직무를 수행하도록 전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언을 구성한다. 새 백성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교이며,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백성’이다. 왕직, 사제직, 예언직으로 인정받은 그리스도교는 분리되거나 모순된 기능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에 의해 재해석된 기능이고,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며, 그리스도교의 각 지체는 그분과 연결되어 참여한다.

분명히 우리는 ‘사제적으로 부름 받았다’는 표현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구성하는 용어들을 찾을 수 있다. ‘부르심’ ‘불리우다’ ‘불리웠다’ ‘직무’ 그리고 분명히 사제직에 관한 용어들(집단명사 주격, ‘사제직’ 또는 같은 가치의 복수형 ‘사제들’)을 발견할 것이다.

1)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탈출 19,6).

2. 역사 안에서 사제직으로 불린 백성의 신학적 지위에 대한 공동체의 충실과 불충실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은 사도에 관한 것이든 백성 전체에 관한 것이든 예배 모임과 은총의 신비에서 구원의 전체 역동성을 끌어 올리는 복음선포, 기억, 성령청원 그리고 영광송의 역동성에 항상 호소한다. 선포의 전달자, 효과적인 변화를 위한 기억의 주체, 삼위 일체 하느님께 찬미로 응답하는 주체인 하느님 백성의 이 모든 것은 회중과 거행 모델의 변화, 그리고 예식의 변화를 통하여 표현된다.

자료들을 비교 조사하면 사제적 인식, 곧 하느님의 모든 백성이 드리는 직무가 전반적으로 점차 약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교 역사는 집에서 단순하고 기쁘게 행하는 빵 나눔(참조. 사도 2, 42-47)으로 특징지어진 형제적 공동체 단계로 시작했다. 점차적으로 질서 정연한 모임으로 예식적이고 다양한 직무가, 교의적이고 규범적인 직무를 강조하는 중앙집중화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또한 ‘신자들이 모인 집’(ecclesia *katá oikian*)이었던 성당은 이제 위로 높이 솟은 웅장한 대성당으로 ‘세상으로부터의 피난처’(fuga mundi)가 되어 사회와 분리되는, 즉 신과의 대화는 공동체적이고 공유된 것보다는 신비롭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교 건축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도교 바실리카로부터 시작된다. 이 바실리카는 각자에게 할당된 장소의 질서에 따라 *taxis*에 배치되고, 이는 다양한 거행 주체가 있었음을 증명한다. 이는 교회의 직분(교리교사, 참회자, 과부, 동정녀, 성가대, 독서자, 부제, 사제, 주교)의 표지이다. 제단을 높인 새로운 구조와 함께 복잡한 장식을 신비 교육에 활용한 로마네스크식 대성당, 다수의 경당이 포함된 중세 대성당을 살펴보면, 상징적 장식의 페르굴라(*pergula*)²⁾로

2) 역사 주: “페르굴라는 성당의 제단과 회중석을 분리하는 벽이다. 그전의 낮은 대리석 칸막이 문과 달리 페르굴라는 기둥들로 지탱되고 램프로 장식된 일종의 긴 장벽이다. 동방에서는 성화벽(*iconostasis*) 형태로 발전했고, 서방에서는 유베(*jubé*) 또

신학적 기준에 따라 엄격히 공간을 분리하였다.

르네상스 대성당 또는 호화롭고 의기양양하고 과시적인 바로크 식 대성당을 살펴보면, 제단의 확장, 회중석의 연장, 경당들의 발전, 대리석 또는 치장 벽돌 장식 등이 점점 거행되는 예식을 눈과 귀로만 참여했음을 보여 준다. 조용하고 공손한 태도 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세례받은 신분을 인식하는 공동체에 맞는 다른 표지들로 대체되었다. 무엇보다도 독서대의 의미가 점차 축소되었고, 세례당은 세례대로 대체되었다. 제대의 규모는 백성과 상관없이 작아졌고, 성체는 그 보호에 대한 강조가 증가하여 오히려 신심적 실재로 전락하고, 주님의 몸과 피를 모시는 영성체는 점점 멀어져갔다.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신비로운 언어와 마술적 신성함의 분위기에서 인식되는 난해한 벽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 능력이 없는 공동체는 때때로 사회학적으로 획득한 것을 교회의 동일한 이미지로 투영하곤 했다. 동일시 또는 복제의 메커니즘은 이 단과 오류를 이기고, 구별과 대립을 통해서만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는 ‘동등하지 않은 교계적인 완벽한 사회’(societas perfecta hierarchica inaequali)로 이어진다. 12세기 ‘교계적인 사회’(societas hierarchica)의 자기 정의에 앞서 권능, 제도, 구원 수단의 교회론이 시작되었다.

교계적 주제는 어떻게 식별되었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교의적 가치를 지녔으며, 20세기 초반부터, 특히 전례에 대한 끈기 있는 연구에 따라 의식적이고 참여적인 평신도 개념의 탄생으로 교회의 인식이 전환되면서 깨졌다. 말씀과 교부들과 과거의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다시 적용하여, 대인관계와 공동체 개념에 더욱 주의를 기울인 사회에서 교회의 자기 정체성 재정립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가야 할 길을 결정한다. 하느님의 백성, ‘사제적 직무로 부름받은’ 백성성의 지위가 명확하게 밝혀진다.

는 난간의 더 단순하고 낮은 형태를 취했다”(Louis Bouyer, *Architettura e Liturgia*, Edizioni Qiqajon, 1994, p.93).

II. 전례 개혁에 대한 공의회 요청과 수용

1. “의식적이고 능동적이고 완전한” 참여

“어머니인 교회는 모든 신자가 전례 거행에 의식적이고 능동적이고 완전한 참여를 하도록 인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한 참여는 전례 자체의 본질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인(1베드 2,9; 2,4~5³) 참조) 그리스도인은 세례의 힘으로 그 참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전례헌장」, 14항).

“전례 행위는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치의 성사’인 교회, 곧 주교 아래 질서 있게 모인 거룩한 백성인 교회의 예식 거행이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 교회의 몸 전체에 관련되고, 그 몸을 드러내며 영향을 끼친다. 교회의 각 지체는 위계와 임무와 실제 참여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으로 관여한다”(「전례헌장」, 26항).

‘완전하고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에서 세 개의 형용사는 점진적으로 참여라는 용어를 강조한다. 「전례헌장」의 근본적인 혁명은 모든 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참여라는 용어를 구별 없이 적용하였고, 이는 하느님 백성의 사제적 직무와 관련이 있다. 이제는 수동성 또는 소외의 지위를 설명하는 모든 것이 쓸모없게 되었다. 평신도, 관객, 보조자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서품받은 성직자가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라, 신자들의 공동체 곧 완전하고, 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불린 백성이 주인공이다. 그것은 신학적 지위에 대한 재해석, 의식화의 여정, 전례 행위를 공동체의 행위로, 거행하는 백성과 하느님 사이의 관계의 대화로 돌아가게 하는 거행을 지향하는 혁명이다.

아마도 공의회 이전에 *ecclesia*라는 용어의 대인 관계 및 공동체적

3)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 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 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1베드 2,4-5).

가치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처럼, *leiturgia*라는 용어를 공적 기능과 백성을 위한, 백성에 의한 전례 봉사로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는 순수한 의미론적 연구가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전례헌장」, 14항과 26항이 제안한 신학적 가치는 세례 덕분에 하느님 백성이 지니는 권리와 의무로서 ‘공적 행동’의 문자적 의미를 다시 드러낸다. 이 권리와 의무는 그가 “선택된 민족, 왕의 사제, 거룩한 겨레,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1베드 2,9; 2,4-5 참조)이 되었다는 것을 잘 표현한다. 이는 「전례헌장」, 14항에서 사용되며, 모든 기술적 용어는 구약에서 차용했으며 1베드 2,9은 2,4-5과 분리될 수 없다. 이 구절들에서 그리스도교적 특성, 곧 사제 직분과 봉헌이 살아 있는 모퉁잇돌인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공동체 설립과의 본질적 연결이 적절하게 잘 나타난다. 성전의 은유를 몸의 은유에 접근시키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몸이 되는 것과 같이 성전이 되는 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아버지께 바치는 제물에 결정적으로 참여한다. 그리스도에게로 모임과 많은 이로의 확장은 그의 몸의 충만함, 곧 교회를 구성하며,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고, 제물의 주체로서 성부께 찬양을 드리며, 성령 안에서 하느님께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봉헌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례헌장」, 14항에 따르면, 전례 개혁은 성직자와 평신도, 모든 신자를 이 인식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례헌장」, 26항은 다른 강조점과 함께 동일한 개념을 재확인한다. 전례 행위는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교회의 행위이다. 전례 행위가 ‘일치의 성사’로서의 고유한 본질을 지니고 있으며 교회의 몸 전체를 나타내며 의미한다.

「교회헌장」은 이를 더욱 강조한다. ‘성사’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더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하느님 백성 전체, 곧 사제적 권리·의무의 총체성으로 다시 안내한다.

특히 「교회헌장」, 10항에서 그렇다. 보편 사제직에 관한 모든 성경 본문이 이 부분에서 함께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1베드 2,4-

10; 묵시 1,6; 5,9-10). 특히 사도 2,42-47의 친교와 찬미의 모델에 대한 호소는 로마 12,1과 연결된다.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곧 복음 선포 개념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세상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힘차게 증언하며 […]”(「교회현장」, 10항).

이 틀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뽑히신 대사제 주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고, 그분께서 새로운 백성이 하느님 아버지를 위한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들이 되게 하셨다. 세례와 견진의 지위에 대한 폭넓고 풍부한 개략적인 설명은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한 교정을 받는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관심을 갖는 문제로 가득 찬 근본이자, 재조정할 수 없는 명확한 진술이다. 두 사제직이 서로에게 요청되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각기 특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를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편 사제직은 성찬례와 관련하여 서품된 직무 사제의 직무와 함께 통합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신자들은 […] 성찬의 봉헌에 참여하며, 여러 가지 성사를 받고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한 삶을 증언하고 극기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제직을 수행한다.” 이러한 관심은 단순히 전례적인 것이 아니라 찬양, 선포, 증거를 연결함으로써 증거와 선포의 실존적 측면과 예배적 측면이 분리될 수 없음을 강하게 강조한다.

「교회현장」, 11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찬의 희생 제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신적 희생제물을 하느님께 바치며, 자기 자신을 그 제물과 함께 봉헌한다. […] 모든 신자는 전례 행위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한다. […] 거룩한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신 신자들은 이 지존한 성사로 적절히 드러나고 놀랍게 이루어지는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여 준다.”

2. 『로마 미사 경본』의 개혁

공의회는 여정은 『로마 미사 경본』 개혁으로 이어졌다. 『로마 미사 경본』의 사용을 위한 원리와 규범을 제시하는 총지침 머리말 5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찬례 거행은 교회 전체의 행위이며, 여기서 각자는 하느님 백성으로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만을 온전히 수행한다.[...] 이 백성은 온 인류 가족의 기도를 하느님께 바치고 그리스도의 제사를 봉헌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신비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한 공동체를 이룰 소명을 지니고 있다. 이 백성은 본디 거룩하지만 성찬의 신비에 의식적이고 능동적이며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 거룩함을 완성해 간다.”

1969년 판에는 빠졌지만 1970년 『로마 미사 경본』 개혁으로 인해 발생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원칙과 규범 앞에 추가된 전체 머리말과 마찬가지로 5항은 변치 않는 신앙의 증거 속에 뿌리와 동기를 바탕으로 미사 예식의 개혁이 어떻게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직무 사제직의 본질에 초점을 맞춘 4항을 따른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실재를 ‘올바른 빛’으로 밝혀 준다. 성찬례 거행에서 직무 사제직과 임금 같은 사제직은 둘 다 고유한 방식으로, 유일한 중개인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부합한다. 성찬례 거행은 온 교회의 활동이다. 이를 고려하여 미사 예식의 개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홀히 여겼던 거행의 측면들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성서적 회상으로 가득 찬 일련의 전형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진 이 본문에서 하느님 백성에 대한 인식과 신학적이고 교회론적 위치에 대한 존중은 「교회헌장」뿐만 아니라 「전례헌장」에서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말씀으로 양육되는 백성이며, 말씀을 통하여 온 인류의 기도가 하느님께 드러진다는 의미에서 사제적 백성이다. 감사하는 백성이요,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하나가 된 백성이요, 본래는 거룩한 백성이나 거룩함으로

완전함과 성장이 필요한 백성이다. 백성은 의식적이고 효과적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성찬례에 활력있는 참여를 통해 거룩함을 키우는 순례자라고 할 수 있다. 의식적이고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는 「전례헌장」, 11항에서 요청된 것이다. 여기에서 신자들이 전례 행위에 잘 알고 능동적이며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돌보는 것이 사목자들의 의무라고 한다.

만약 5항이 이미 충분히 우리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7항의 원칙과 규범은 더 핵심으로 들어간다. “주님의 만찬인 미사에서 하느님 백성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제가 주례하는 주님의 기념제인 성찬의 희생 제사를 거행하도록 함께 모이라고 부름을 받는다. 거룩한 교회의 이러한 지역 모임에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마태 18,20)고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이 가장 뚜렷하게 실현된다.”⁴⁾

1969년판에 나오는 다음의 본문을 보다 확대하였다. “주님의 만찬인 미사는 주님의 기념제를 사제의 주례로 거행하기 위하여 모인 하느님 백성의 거룩한 집회 또는 모임이다.” 주님의 만찬이 백성의 거룩한 집회 또는 모임이라는 결정적인 특성을 상실한 것은 분명 적지 않은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나 사제 직무를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백성이 주님의 기념제를 거행하기 위해 모였다는 주제는 유지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지역 회중의 의미도 적지 않게 중요하다. 집회나 모임의 실재 너머로, 모임의 공동체적 특성에 대한 강조는 본질적으로 똑같다(14항 참조).⁵⁾ 이러한 공동체적 특성으로 인해 주례하는 사제와 신자들 간의 대화, 모임의 환호가 예식의 개혁에서 되살아났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사제의 인사와 기도에 대한 신자들의 환호와 응답은 그들이 한층 더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도와준다. 신자들은 어떠한 형식의 미사에 참석하든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 전체의 행위라는 그 특성을 뚜

4) 1970년 표준판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에서는 제1장 미사의 중요성 7항이 2002년 제3표준판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이하 「2002년 총지침」)에서는 27항으로 조정되었다.

5) 「2002년 총지침」, 34항.

렛이 표현하고 실현해야 한다”(15항).⁶⁾ 이 공동체적 해석에서는 공동체 전체와 관련된 참회 행위, 신앙 고백, 보편지향기도, 주님의 기도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 거행을 위해 모인 백성이다.

제3장 미사 안의 직무와 봉사에 대해서 다룬다. 여기서 각자가 수행하는 직무를 넘어서, 함께 모인다는 사실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먼저 떠오른다. 성찬례 거행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위계와 임무, 다른 직분과 직무를 나타내야 한다(58항 참조).⁷⁾ 주교이든 사제이든 주례자라는 임무와 직무는 전체 하느님 백성의 임무와 직무와 결합된다.

“미사 거행에서 신자들은 거룩한 겨레,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 임금의 사제단을 이루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제의 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 자신들도 사제와 함께 흠 없는 제물을 바치며, 나아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배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깊은 신심을 간직하고 같은 거행에 참여하는 형제들을 사랑하여 이 모든 것을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한다”(62항).⁸⁾

성찬례 거행의 맥락에서 다양한 직무 수행에 관한 분석은 이 모임을 이어가는 다른 사람들의 임무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이 하느님 백성의 사제적 위치를 주저 없이 언급하고 찬미의 봉사를 수행하도록 불림을 받은 백성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주장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예배 모임에는 교회의 매우 독특한 표현이 있다. 성찬례는 교회 생활의 ‘정점이며 원천’(culmen et fons)이다. 출발점이며 동시에 수렴점이다. 그 안에서 불림을 받은 백성은 은총의 지위를 온전히 충족하고, 자신들이 참여하게 된 은총 그 자체를 알린다. 교회 구성의 원인이라 불리는 공동 사건, 관계적 사건이다. 성령과 말씀은 구체적인 장소에서 체현되며, 그 공동체가 유일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이가 신비롭게 모이는 표징이며, 서

6) 「2002년 총지침」, 35항.

7) 참조: 「2002년 총지침」, 91항.

8) 「2002년 총지침」, 95항.

로 다른 역할들의 조화는 모여든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회중을 방해하지 않고 고양시킨다.

3. 전례문에서의 예시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에 의해 제안된 경우, 전례 본문에 그것이 반영되었음을 더 분명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제시할 예시는 비록 작은 표본이지만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개념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감사 기도들, 부활 시기의 본 기도들, 마지막으로 성유 축성 미사를 통해 확인하려 한다.

1) 감사 기도들

소위 ‘로마 전문’이라 불리는 ‘감사 기도 제1양식’은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흥미로운 증언이다. 믿음의 내용을 결정화하여 표현하는 증언이며 매개체인 전례 기도는 하느님 백성과 모인 회중의 사제적 본성에 관한 신학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증명하는 다양한 구절을 제시한다.

여기서 통시적 자료를 제공하기보다는 우리가 요청하는 모든 증언에 대해 현재 사용되는 『로마 미사 경본』에서 제시한 공시적 자료를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 흥미로운 사실은 감사 기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모든 거행에서 주례자의 주례를 특징 짓는 양식문에서 여러 번 제시되는 ‘저희’를 살펴볼 것이다. 공동 집전은 대인 관계의 복수성에 대한 명백하고 확실한 표지이며 여기서 주례자는 대표, 연출가, 대변인 이기에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자료와 그것의 자명함은 현행 감사 기도 제1양식에서 사용되는 복합적인 표현들을 라틴어 본문으로 열거하여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in primis quae tibi **offerimus** pro Ecclesia tua sancta catholica”(먼저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예물을 바치오니); “... **omnium circumstantium** ... (pro quibus tibi **offerimus**: vel) qui tibi

offerunt hoc sacrificium laudis”(여기 모인 모든 이[···] 저희는 이들을 위하여 찬미의 제사를 바치나이다); “hanc igitur oblationem **servitutis nostrae, sed et cunctae familiae tuae**”(저희 봉사자들과 온 가족이 바치는 이 예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소서); “unde et memores Domine, **nos servi tui sed et plebs tua sancta**”(주님, 저희 봉사자들과 주님의 거룩한 백성은[···] 기념하나이다).

“먼저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예물을 바치오니”라는 표현은 기도 자체로 예물의 목적지를 바로 설명한다. 그러므로 성찬례의 예물을 받아 주시고, 거룩하고 흠 없는 희생 제물을 강복해 달라고 하느님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예물의 교회적 지평과 목적지를 강조하는 것과 함께, 그 예물의 힘으로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가 평화, 보호, 일치를 간청하는 것이다. 이는 교황에서 주교로, 사도들에 의해 전해진 교회의 신앙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직무와 봉사에 대한 포괄적이고 증대된 표현이다.

이 포괄적이고 증대된 표현은 무엇보다도 “여기 모인 모든 이”로 확인된다. 그들은 찬미의 제사를 ‘바치는’ 이들이다. 본래의 표현은 “qui tibi offerunt hoc sacrificium laudis”(이 찬미의 제사를 당신께 바치오니)이었는데, 현재 본문인 “pro quibus tibi offerimus: vel qui tibi offerunt hoc sacrificium”(저희는 이들을 위하여, 또는 그들이 찬미의 제사를 바치나이다⁹⁾)로 확대된 것은 10세기로 올라간다. 어쨌든 “pro quibus tibi offerimus: vel qui tibi offerunt hoc sacrificium”의 예외는 세부 지침이 본문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봉헌 주체에 대한 통합적인 논제는 주례자와 공동 집전자가 믿음과 정성을 지니고 참석한 이들에 대한 설명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믿음(fides)과 정성(devotio)의 라틴어 의미는 ‘사제직에 대한 충실성’을 의미한다. 한국어본에서는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은 vel과 그 이후의 sed et의 포괄적인 의미를 넘어서, 이 표현에는 이미 사제 직무와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9) 라틴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자가 번역하였다.

어쨌든 ‘여기 모인’(circumstantium)의 문제는 남아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에 대한 해석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느님 백성은 간단히 말해서 참석하고 공동 집전한다. 다른 한편으로 주체들의 포괄적인 역동성은 순례하는 교회로부터 성인들의 통공으로 확장된다. 로마 전통의 전형적인 긴 목록으로 인하여 그림처럼 강렬한 이 공동 프레스코화에서 주요 주제와 봉헌으로의 복귀는 거행 회중의 총체성을 다시 제안한다. “주님, 저희 봉사자들과 온 가족이 바치는 이 예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소서.” 제정 이야기 뒤에 공동 집전자인 ‘우리’에 대한 언급이 다시 나온다. “주님, 저희 봉사자들과 주님의 거룩한 백성은[...] 기념하나이다.” 간청은 여전히 집전자인 ‘저희’에 대해 표현한다. “이 제단에서 성자의 거룩한 몸과 피를 받아 모실 때마다 하늘의 온갖 은총과 복을 (저희에게) 가득히 내려 주소서.”

로마 전문은 오래되었고 존중받고 있는 텍스트이다. 교황 바오로 6세의 개혁은 성인들의 긴 목록을 선택사항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우리가 찾아낸 표현들은 공동 집전자인 백성의 위치에 대한 옛 인식을 증명한다. 확실히 백성과의 이러한 연결은 우리가 제안한 것처럼 모든 구절에서 단순하고 명백하지는 않지만, 특히 공동 집전하는 봉사자로서 상황의 맥락을 넘어, 거룩하고 흠 없는 제물의 봉헌을 위해 모였기 때문에 하느님 백성, 가족, 거룩한 백성(*plebs sancta*)라고 불리운다. 찬양의 수행, 회중의 소집은 정확히 은총과 친교의 신비에 속하고, 지상 공동체에서 천상 공동체로 가는 길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연결시킨다. 봉헌의 주체는 모인 공동체이다. 예물의 대상은 그것을 위해 희생되신 그리스도이다. 봉헌의 목적은 모인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청하는 온전한 친교이다. 이 모든 것은 직무자들과 참석한 신자들의 풍성한 두 부분, 반대가 아니라 서로를 포용하는 “sed et cunctae familiae tuae”(온 가족이)와 “sed et plebs tua sancta”(거룩한 백성)에서 잘 드러난다.

감사 기도 제2양식은 히폴리토의 아나포라를 기본으로 하였다.

짧고 간결하게 ‘사제직을 수행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여기서도 주례자에 사용되는 ‘저희’라는 복수형 사용은 그 원래 의미가 무엇이든 확실히 회중 전체로 확대되어 있다.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는 것과 감사를 드리는 것은 분명히 사제직 수행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회중은 아버지께 명시적으로 감사드린다.

같은 맥락에서, 회중의 ‘나’의 확대는 기념에 뒤따르는 성령 청원에서 여전히 발견될 수 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또는 순례자와 가난한 이에 대한 자비의 맥락에서, 이미 그분 얼굴의 빛으로 만족하는 맥락에서 공동체를 기억하고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하기를 아버지께 청원한다.

감사 기도 제3양식은 삼위일체적 시작에서 성자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는” 아버지께 대한 찬양의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여기에 청원이 존재하고, 청원의 이유, 곧 깨끗한 예물을 봉헌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잘 알려진 감사 기도의 맥락에서 “(저희가)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에서 거행자인 ‘저희’의 표현은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거행하는 회중의 사제적 위치는 ‘우리의 구속을 위한 희생 제물’과 함께 회중을 성령으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에서 확인된다. 다양하게 표현된 공통의 개념은 간구의 마지막 표현에서 다시 절정에 이른다.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들이소서.”

또한 감사 기도 3양식은 찬양을 위한 모임인 집회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자신을 봉헌하는 성자를 회중 자체에 신비롭게 적용하면서 회중의 사제적 지위를 다시 드러낸다. 이 모든 것은 감사

기도에서 성령의 변화시키는 힘과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다. 감사 기도를 통하여 변화된 예물에 의하여 끊임없이 모인 백성은 충만한 회중으로 한 마음 한 몸이 된다.

감사 기도 제4양식에서 ‘사제직 수행’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역사적인 구원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지으신 것은 창조주께 순종하여 모든 만물을 돌보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원초적인 계획을 기억한다. 같은 이야기에서, 친교의 영감은 예물과 맺어졌다가 배반하기를 반복한 계약 체결에 맡겨졌다. 제4양식은 만찬을 우정의 맥락, 곧 끝까지 증명된 깊은 사랑의 맥락에 두는 것을 늘 공통으로 강조한다. 구속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하늘로의 승천을 경축하며, 공동체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희생 제물로 그분의 몸과 피를 바친다. 여기서 긴장은 하느님 자신이 당신 교회를 위해 준비하신 제물인 그분에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활동으로 한 몸으로 결합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이다.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표현이 빠졌지만, 이는 모인 공동체에 의해 이루어진 봉사를 의미한다. ‘부름 받은 이’의 본성은 그 존재에 대한 부름과 다름없다. 이는 계약의 반복된 봉헌을 위한 부르심이다. 최후의 부르심은 만찬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이며, 이것은 종말까지 제자들을 향한 그분 사랑의 표시다. 주님이 다시 그리고 결정적인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의 소멸과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기념하는 것은 거행 회중인 공동체의 효과적인 행위이다. 회중은 아버지께 바쳐진 제물과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한 몸으로 결정적으로 재결합되고 아버지께 산 제물로 봉헌되기를 간청한다.

마지막으로 ‘화해’ 감사 기도들에 대해서 다루겠다. 첫 번째 ‘화해’ 감사 기도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참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세상 창조 때부터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나이다.” 여기서 ‘거룩함’의 주

제로 ‘사제직 수행’과의 연관성을 암시한다. 탈출 19장과 신약에서 취해진 ‘임금 같은 백성’ ‘임금의 사제단’ ‘거룩한 민족’이라는 표현은 우연이 아니다(1베드 2,4-10 참조). 백성의 거룩함, 하느님의 선물, 그분 신비에 대한 존재적 참여가 여기에서 그분 사랑에 참여와 하나가 된다. 그리고 처음부터 인간이 존재하도록 부름받은 목적은 하느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름받은 유전적 특성과 최종 결과를 통해 제시된다. 이것에 대한 기념은 아버지께서 당신 주위에 모인 백성을 보시고, 백성이 당신 아들의 몸과 피가 되게 해달라고 바친 예물들을 변화시키는 성령을 보내어 그것으로 모인 백성도 또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간청이다. 그러므로 이 간청은 아버지의 창조적이고 구속적이며 화해의 계획을 주도하는 은총의 신비에 대한 유전적이고 역동적인 식별뿐만 아니라, 은총의 힘으로 창조, 구속, 화해가 자녀됨에 있어서 결정적인 효과로 봉헌의 주체로서 모인 백성임을 확인한다.

‘저희의 파스카’이며 ‘영원한 평화’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거행을 위해 모인 공동체는 ‘인류를 화해시키는 이 제사를 자비로우시고 변함없으신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한다. 그러면서 이 가족을 아버지와 재결합시킨다. 또한 감사 기도 제3양식의 주제 초점에 따르면 가족 자체도 성자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재결합된다. 여기서도 봉헌자와 아버지께 자신을 유일한 결정적 제사를 드린 그리스도의 모범 위에서 그분과 함께 봉헌을 하는 것 사이의 수렴적 역동성은 함께 모인 공동체의 사제적 태도를 구성하는 효력을 발생시킨다. 제물, 희생, 화해의 결과는 아버지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도 모인 백성들의 마지막 간구에서 ‘성인들의 무리에 들어’라는 표현으로 잘 드러나며 더 이상 기도에서만 아니라, 충분히 경험한 친교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결정적으로 부패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살 것이다.

두 번째 ‘화해’ 감사 기도도 또한 사제직 수행을 위한 부름의 의미에서 많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기념에서 “저희는 성자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성자께서 당신 사랑의 보증으로 남기시고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이 완전한 화해의 제사를 봉헌하나이다”라고 기도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화해라는 용어의 의미를 당연시했다. 교회는 오랫동안 이것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연구해 왔다. 사실 화해는 쇠신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며, 계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화해의 제사”는 죄의 역동성으로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획에 따른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우주적, 그리스도론적, 교회론적 의미와 성령의 성사론적이고 성령론적 역동성에서 그의 희생적인 죽음의 힘으로 새롭고 결정적인 백성을 형성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를 화해시키려는 아버지 하느님의 계획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성자와 함께 저희를 받아 주시고”라는 표현은 교회, 모인 회중의 주체성, 예물과 봉헌자의 동일시라는 역동성으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일치 표징이자 평화의 도구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빛날 수 있는 방법이다.

“오늘 성자의 이 식탁에 저희를 모아 주셨듯이 하느님의 어머니 영광스러우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들과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다 죽은 저희 형제들과 여러 언어를 쓰는 모든 민족들과 더불어 평화가 넘치는 새 하늘 새 땅에서 펼쳐질 영원한 일치의 잔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모아들이소서.” 현재의 모임과 종말론적 모임은 모인 백성의 사제직 수행의 관점과 그 힘으로 인해 동일하다.

2) 부활 시기의 본기도들

여기서는 부활 시기의 주일 본기도들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감사 기도에 대한 연구와 연결을 하려 한다. 본기도의 문학적 유형이 실제로 소집된 백성의 사제적 지위에 대한 더 큰 지표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 나, 다해의 3년 주기에서 적어도 한 번은 그 주제가 주일 본기도에 연결되며, 전반적으로 연구가 약간 묘기 같으며 의미론, 특히 신학적 전이성의 적용을 가정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처음 제시하는 전례적 증언은 파스카 성야에서 사도의

서간 봉독에 앞서 바치는 본기도에서 찾을 수 있다. “하느님, 주님 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 거룩한 밤을 비추셨으니 저희가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저희 모두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자녀로 받아들여짐은 계약 체결의 결과로, 그리스도와 그의 신비에 참여이고 응답이며 아버지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결과이다. 우리는 또한 본기도의 두 번째 부분에서 언급된 봉사에 대한 충실성을 왕직의 동의어로서 파스카 성야 전례의 장엄함과 복잡성에서 읽을 수 있다. 하느님의 주인공은 계약에서 그의 파트너인 백성의 주인공을 동반한다.

“하느님, 못 백성을 한데 모으시어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으니 세례로 새로 난 이들이 같은 마음으로 믿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부활 팔일 축제 목요일 본기도는 ‘소집’ 주제에 대해 언급한다. ‘소집’ 주제가 다시 나타나는 것은 부활 제3주간 수요일 본기도이다. “주님, 주님의 이 가족들을 인자로우게 굽어 보시어”(이탈리아어 미사경본에서는 “오 하느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이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소서”). 부활 제4주간 화요일 본기도에서는 더 복잡하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 부활의 신비를 거행하는 저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 기도는 분명히 주님 부활의 신비를 기념하는 이 거행에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넓은 의미에서 사제직 수행과 관련된다. 부활 제5주간 금요일 본기도는 ‘거행’의 주제를 소환한다. “주님, 기쁜 마음으로 거행하는 이 파스카 신비를 저희가 날마다 실천하여[···]” 또한 예배적 봉사와 실존적 봉헌인 봉사 사이의 동일성을 파악할 수 있다. 부활 제6주간 수요일 본기도는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어 저희가 신비로운 이 예식으로 성자의 부활 축제를 지내며 다시 오시는 그분을 모든 성인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소서”이다. ‘소집’과 ‘거행’의 내용을 보여 주기도 한다. 주님 승천 대축일의 본기도는 이 방향에 대해서 더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저희를 들어 높이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기쁨에 가득 차 감사의 제사를 바치며.” 여기서 모인 회중의 거행자로서의 주체성이 분명하다.

부활 제7주간 수요일 본기도는 ‘모임’과 ‘봉사’의 개념을 포함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하느님의 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한데 모여 온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기며 순수한 뜻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소서.” 비록 ‘봉사’라는 용어에 대한 언급이 사제적 의미에서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부르시는 성령으로부터 시작하는 기술적인 회복은 어렵지 않다. 최종 결과이며, 성령의 결과인 한 마음 한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의 분명한 표현이다. 감사 기도들은 같은 용어로 성찬례의 거행적이고 효과적인 역동성을 반복해서 제시했다. 따라서 부활 제7주간 목요일 본기도에서 변화시키는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 청원하는 것은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구원 계획에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님의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영신의 선물로 가득 채워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소서.” 하느님은 진실한 봉헌과 협력하는 봉사를 좋아하신다. 따라서 두 용어를 본래의 주제로 되돌려보자. 이어진 금요일 본기도도 성령 안에서 봉사에 대한 더 큰 헌신을 요청한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빛으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 주셨으니 이 큰 선물을 받은 저희가 굳은 믿음으로 더욱 열심히 하느님을 섬기게 하소서.” 사용된 용어는 다시 한 번 문맥을 예배적 봉사와 이전에 언급한 큰 선물을 받아 그 힘으로 신앙의 진보에 대한 실존적 확대를 이끈다.

성령 강림 대축일 전야 미사 본기도는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 흠어진 민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과 다른 언어들이 연합하는 것으로 돌아간다. “온 세상에 흠어져 살며 서로 다른 말을 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천상 은총을 내리시어 한마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찬미하며 한 백성을 이루게 하소서.” “하느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것은 사제직에 관한 관용적인 표현이다. 이것은 감사 기도 제4양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성유 축성 미사

일련의 전례문을 접하면서, 먼저 서로 대비되는 두 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불일치를 알아야 한다. 왕 같은 사제직과 그 정도를 나타내는 기름 부음의 표징을 기념하는 거행, 주님의 만찬 미사 이전에, 거룩한 성목요일 오전 전례에서 성유 축성에 앞서 사제직과 독신의 서약 갱신이 있다. 개인적으로 이 성주간 목요일은 매우 바빠서 항상 거행되는 신비의 한 측면 또는 다른 측면을 축소하게 된다. 경험상, 성유 축성 미사에 대한 정당한 강조는 항상 주님 만찬 미사를 희생시키며 끝난다. 내 생각에는 전례 주기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후자인 것 같다.

다른 곳에도 언급되는 성유 미사는 주교와 사제들의 친교와 위계적 사제직의 기념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규정하는 세부 지침에서 모순을 드러낸다. 감사송을 제외한 기도문들은 그리스도인의 기름 부음의 모범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기념한다.

입당송은 요한 묵시록 1장 6절을 참조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셨으니,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독서와 주제 조화를 이루는 본기도는 성령의 도유를 통한 그리스도의 축성에 대해 다루며, 신자들이 참여하는 이 축성으로 ‘구원의 증인’이 되기를 청한다. 제1독서는 이사야서 61장 1-3.6.8-9절을 낭독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너희는 ‘주님의 사제들’이라 불리고, ‘우리 하느님의 시종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독서는 이스라엘이 “주님께 복받은 종족”이 될 것이라는 계약의 내용을 강조하며 끝난다.

시편 88편에서 취한 화답송은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말한다. “나는 나의 종 다윗을 찾아내어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노라.” 사도 독서(묵시 1,5-8)는 시작 예식에 이미 있었던 찬미가인 입당송의 내용을 다시 상기시킨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 주셨고,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복음 환호송(이사 61,1)은 또한 이미 선포된 본문을 다시 취한다.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는 루카 복음 4장 16-21절에서 인용되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강조로 특이하면서 중요한 본문에 대한 되새김이다. 독서 사이에 위치한 화답송의 응송은 시편 89편 2절이고 복음 환호송은 루카 복음 4장 18절에서 인용한 이사야서 61장 1절을 다시 취했다. 이러한 철저한 주제의 일치에서 영성체 후 기도¹⁰⁾는 성유, 곧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방식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강조한다.

사제들의 서약 갱신과 감사송은 그 고유한 주제로 충돌한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과 사제직 참여에 대한 본래 관심은 일관되게 교역자의 사제직이라는 주제로 다루어졌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그들의 직무는 주교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성유 축성 기도에서 표현되는 일반적 맥락에서 분리되어 있다.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공포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령에 따라 개정된 현재 본문에서, 「성유 축성 예식」, 25항, 「축성 성유 축성문」은 비오 12세의 개혁에 의해 추가된 몇 구절을 제외하고 고대 기도문을 다시 취한 것이며, 성유 축성 미사의 감사송¹¹⁾에 다시 적용되었다. 이제 그 기도는 비오 5세 미사 경본에 있었던 자리로 돌아와 축성 성유의 중심성을 무시한 새로운 감사송의 초안 작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10)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의 성사로 새로운 힘을 얻고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니게 하소서”(성유 축성 미사, 영성체 후 기도).

11) “[...] 아버지께서는 외아드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어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대사제로 세우시고 오묘한 섭리로 성직을 마련하시어 교회 안에 단일한 사제직이 보존되게 하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소유가 된 백성을 임금의 사제직으로 돌보시고 형제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뽑으시어 안수로 당신의 거룩한 직무에 참여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류 구원의 제사를 새롭게 하며 주님의 자녀들과 파스카 잔치를 거행하고 거룩한 백성을 사랑으로 이끌며 말씀으로 기르고 성사로 거룩하게 하나이다. 또한 그들은 형제들의 구원과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애써 닳고 끊임없이 아버지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보여 주나이다.[...]”(성유 축성 미사, 감사송).

또한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4항¹²⁾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 역설적인 것은 이 새로운 감사송을 *lex orandi lex credendi*(기도의 법과 믿는 법) 원칙의 지표로 인용했다는 것이다. 나는 기름 부음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름과 향기의 넓은 의미로 사용되며, 어떤 기능을 수여하거나 기능 수행에 대한 적합성을 인정하는 공적 예식의 전형이다.

구약에서 임금과 사제들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 물질적 기름 부음의 경우 예언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느님의 영에 의한 은유적 기름 부음을 대체한다. 성령 덕분에 요르단강에서의 예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한 적합성과 메시아적 활동으로 그분을 확인시켜 준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에 의한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전달되어 그의 메시아적 기능에 참여하게 된다.

위로의 표징으로, 병든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힘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입증된 기름 부음은 점차 사제직과 주교직의 입문과 수여에 수반된다. 향기는 행복을 전달하는 유동성을 지원한다. 품격과 직무로 구성된 존재의 표징은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인 ‘또 다른 그리스도’(alter Christus)로서 고유한 ‘좋은 향기’를 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우리의 관심사인 ‘사제직으로 부르심’에 있어서 축성 성유의 축성은 분명히 필수적이다. 이 본질은 이제 예식에서 예상되는 두 가지 가능성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된다. 두 경우 모두 축복의 중심에는 임금 같은 사제직, 하느님 백성의 임금, 사제, 예언자 설정이 있다.

올리브 나무와 기름에 대한 찬양이 다윗, 모세, 대홍수에서의 비둘기와 올리브 가지, 요르단강의 비둘기, 아버지의 음성에 대한 기

12) “주교와 신부에게 고유한 직무 사제직의 본질은 예식 안에서 사제가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와 임무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사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제사를 바치고 거룩한 백성의 모임을 주례한다. 사제직 제정을 기념하는 성주간 목요일 성유 축성 미사의 감사송은 이러한 임무의 뜻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드러내며 풀이한다. 이 감사송은 사제권의 수여가 안수로 이루어졌음을 알려 주고 그 직무를 낱알이 열거한다. 이 권한은 새 계약의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의 권한을 계승하는 것이다”(「2002년 총지침」, 4항)

역과 결합하는 역사적이고 구원적인 맥락에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그분의 기쁨—무엇보다도 주 그리스도께 기쁨의 기름을 아낌 없이 주셨다—을 증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축복한다.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주님께서 이 기름에 ✦ 강복하시고 축성하시어 주님과 함께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기름에 성령의 힘을 채워 주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받은 크리스마라는 이 성유를 주님께서는 사제들과 임금들과 예언자들과 순교자들에게 바르셨나이다. 영혼을 씻는 세례로 새로 낳 이들에게 이 기름을 완전한 구원과 생명을 얻는 성사의 표지로 세워 주시고 그들이 이 기름을 발라 타고난 죄를 씻고 거룩해져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성전이 되고 주님께서 받아 주실 깨끗한 삶의 향기를 내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사로 임금과 사제와 예언자의 영예를 누리는 이들이 불멸의 임무를 수행하는 갑옷을 입게 하시며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이들에게 바르는 구원의 축성 성유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상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름 부음의 표현적인 표징에 주의를 기울인다. 기름 부음은 임금, 사제, 예언자 설정에 연결된다. 그 덕분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종말론적 잔치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이는 두 번째 기도문에서 표현된 것과 동일한 주제이다. 교회를 선물과 은사로 채우고 교회를 세상을 위한 구원의 표징과 도구로 삼는 성령의 내려 주심과 긴밀히 연결되어 기도는 계속된다.

“하느님께서는 신비로운 축성 성유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풍부히 나누어 주시어 세례로 새로 난 하느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도유로 굳세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의 예언자직과 사제직과 왕직을 나누어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향료를 넣은 이 기름에 ✦ 강복하시어 이 기름이 저희에게 주님의 복을 주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이 기름을 바르는 형제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풍부히 내려 주시고[···]”

III. 개혁된 거행에 대한 인식을 위해

구원 역사의 절정에서 하느님 말씀은 백성의 위치, 곧 ‘사제직 수행으로의 부르심’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기초를 제공한다.

찬양의 봉사를 위해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그리스도교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약화된 것 너머에는 전례 전통과 그것의 끊임없는 증언의 자료가 있다. 로마 전문도 축성 성유 축성문처럼 하느님 백성의 위치를 임금, 사제, 예언자의 품위로 주저 없이 이끈다. 이 품위들은 분리하기 어렵다. 왕직, 사제직, 예언직은 절대로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신비와 그분의 기름 부음, 그리고 메시아적 축성의 바탕을 형성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 모두에 참여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 모든 것을 충분히 확인해 준다. 그리고 전례 봉사직들, 주례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주교 또는 사제, 부제와 평신도가 수행하는 시종 또는 독서 또는 다른 기능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사제직 수행으로의 부르심’은 죽음과 부활로 아버지께 자신을 바친 그리스도의 신비와 결합한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부여된 고유한 봉사와 직무라는 사실이다.

이는 신학적 문제이기보다는 우리 공동체가 은총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입증해야 하는 문제이다. 지난 9월 아시시에서 저는 더욱 세밀하게 평신도의 관점에서, 일반 사제직과 임금 같은 사제직의 실행과 하느님 백성의 신학적 지위에 더욱 집중하여 세 가지 제안을 했다. 저는 그것들이 여전히 전적으로 유효하고 우리의 이 중요한 관심사에 상응한다고 생각한다.

1. 새로운 공동 모델

하느님 백성의 공동 지위는 비록 교회의 본질에 관한 공의회 교부들의 불확실함이나 불일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고유한

영역에서, 「교회 현장」(*Lumen gentium*) 제2장 ‘하느님의 백성’에서 충분히 제시되었다. 이탈리아 교회의 여정, 사목 계획, 특히 1980년대의 두 번의 교회 행사는 이러한 신학 개념과 공동체와 회중을 폭넓게 통합했으며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분명히 했다.

많은 노력과 부인할 수 없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해된 성경과 신학적 성찰로 성장한 하느님 백성에 대한 변화된 인식은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상황에서 산산이 부서진다. 여기서의 구조는 수집된 자료로부터 완전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결론을 지연시키고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일 미사는 이러한 어려움과 부적절함을 증명해 준다. ‘거행의 쇠신된 인식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성찬례를 위해 모인 공동체가 모든 사람이 드리는 봉사의 다양성과 조화로움으로 사제적 본성과 모인 백성의 직무적 본성을 증명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믿음의 백성에게만 호소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다. 만약 주님의 몸인 교회의 친교 신비의 불투명성과 찬미와 청원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전체 공동체가 당면한 선교에 대한 무관심이 결합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다.

새로운 공동체 모델은 분명히 보편 사제직(세례·견진)과 직무 사제직(성품)의 상호성에 대한 신학적 전환에서 비롯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세례 사제직과 축성 사제직의 원천적 근본과 왕직, 사제직, 예언직 지위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동체의 해체, 거대화로 인한 위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신약에서 말한 ‘집에서 모인 교회’(ecclesia kat'oikian, 사도 2,46)에 가까운 사람들의 공동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신도와 그리스도인 부부에 대한 관심이 이에 연결된다. 교회의 형상화된 지위는 ‘내부’(ad intra)에서의 지위와 ‘외부’(ad extra)로 향하는 역동성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형태를 요구한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공동 집전 공동체는 강생의 이야기와 역사의 우선성, 곧 성취를 향한 본질적인 길이 구원, 구속, 화해의 힘으로

나타나는 참된 상호 관계의 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공동체들을 재창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포, 증거, 봉사의 교회 역동성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찬양을 위한 모임 방식으로만 주어 진 ‘참여’에 만족하지 않고 ‘공동 집전’의 주체라는 귀중하고 필수 불가결한 사실을 표현할 것이며, 따라서 그 모든 은사적이고 직무적인 특성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2. 은사와 직무의 일치

새신된 거행 의식은 은사와 직무에 대한 ‘교회의 재치권 보충’(supplet Ecclesia)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실재 적용에서 펼쳐진다. 공동체는 은사와 직무에서 식별의 역동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성품 직무(부제, 사제, 주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직무에도 적용된다. 공동체의 비투명성과 복음 선포의 무능력에 대체로 적성과 은사를 식별하지 못하는 데 있다. 직무에 대한 접근은 적어도 친교의 신비인 교회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 모델, 조건에 의해 뒷받침된다. 무엇보다도 성품 직무와 관련하여 모든 전례 직무에 전염된다. ‘평신도 직무의 성직화는 이것의 표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지평에 대한 표현의 원칙에 대한 강조는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을 일으키고, 이는 집전자 안에서 부적합한 방식으로 표현되며, 선포와 교회의 책임의 차원에서 더 많이 경험된다. 전례 회중, 직무의 상호성, 곧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풍부하고 다양하면서도 근본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는 한 직무가 다른 직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확언하는 것을 바꾸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직자의 존재 이유는 바로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분별하고, 조화시키는 것이다.

3. 예언, 찬양, 봉사의 광범위한 증진

지금까지 성유 축성 미사의 증언을 불러일으켰고 무엇보다도 성

유에 대한 성경 본문과 조화를 통해 기름 부음의 근본적인 본질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메시아적 백성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거행에 대한 인식 쇄신을 위하여 기름 부음과 그에 대한 교회론적 해석이 온전히 필요하다. 공동 집전의 표현은 찬양을 드릴 때 완전하고 능동적이며 의식적으로 자신의 왕직, 사제직, 예언직을 함께 실행함을 의미한다.

증언과 선포, 찬양(예배이든 실존이든), 공동체와 형제들에 대한 직무는 믿음의 백성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유일한 직무에서 분리될 수 없는 측면들이다.

그러나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모범과 매일의 해석이 필요하다. 거행에 대한 쇄신된 인식은 거행 자체와 찬미와 화답으로 부르심 받은 백성의 메시아적 본성에 대한 역동적인 반응과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문제는 제기된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여전히 회중의 은사적이며 직무적 명백함에 관한 것이며, 이는 인간인 ‘우리’의 인간학적 지위에 의해 뒷받침되고, 하느님인 ‘우리’에 구성적으로 유사한 표징이다.

따라서 환대와 창의력은 집전자의 주체성을 표현하는 두 축이며, 그 역동성은 구원의 부르심에 동의하고 그 부르심 자체에 더 충실하게 재적용하고, 보다 적절하게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대화에서 환영과 창의력은 집전자인 ‘우리’의 사회학적이고 교회론적인 열성을 불러일으키며, 불린 회중의 역동성, 은사, 실존적 다양성이 고양되기를 요청한다.

이러한 요청 및 기타 유사한 요청을 수용해야 공의회가 시작할 쇄신된 인식이 본래의 역사적이며 구체적인 해석을 지닌다. 우리 공동체가 겪는 딜레마가 있다. ‘우리’라는 회중을, 특히 공동 집전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 반대로 공동 집전자인 회중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지만 질서정연한 주님의 몸을 증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오직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라는 환호는 그 고유한 복음 선포의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오직 이렇게 그 탈출 상태의 영구적인 기억 속에서, 그리고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 축성되고, 기름부음 받고, 부름받고,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천상 전례에 대한 인식과 표현력이 성장할 것이다. 전례에서 하느님의 모든 것은 ‘다양성 속의 일치’의 민감한 표현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확실성과 재검토 및 쇄신의 추진력 사이에서 영원한 혼인을 갈망하는 교회를 귀중한 보석으로 장식하고 은사와 그 해석의 양극성과 그것을 직무로 옮기는 과정에서 교회는 점점 더 찬란함의 확실한 지위,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에 대한 성찰에 적응하게 된다.

[참고 문헌]

- Bugnini, A., *La riforma liturgica*(1948~1975), Roma Edizioni Liturgiche, 1983.
- Dell'Oro, F., “Il rinnovamento della liturgia sotto il pontificato di Pio XII e Giovanni XXIII”, in *Assisi 1956~1986. Il movimento liturgico tra riforma conciliare e attese del popolo di Dio*, Cittàdella Editrice, 1987. pp.189~278.
- Kaczynski, R., “Il senso di un convegno”, in *Assisi 1956~1986. Il movimento liturgico tra riforma conciliare e attese del popolo di Dio*, Cittàdella Editrice, 1987, pp.25~46.
- Mazza, E., *Le odierne preghiere eucaristiche*, vol.I: Struttura, Teologia, Fonti; vol.II: Testi e documenti editi e inediti, EDB, 1984.
- Militello, C., “I ministeri dell’assemblea da Israele alla chiesa”, in *L’Assemblea liturgica, Atti della I Settimana regionale di Liturgia pastorale*, Edizioni Liturgiche, 1970, pp.93~110.
- _____, *Il Popolo di Dio tra navata e santuario*, in *Gli spazi della celebrazione rituale*, Edizioni Liturgiche, 1984, pp.11~39.
- _____, “Sacerdozio comune e ministerialità laicale nella liturgia”, in *Assisi 1956~1986. Il movimento liturgico tra riforma conciliare e attese del popolo di Dio*, Cittàdella Editrice, 1987, pp.124~142.

이 글은 이탈리아의 여성 철학자이자 평신도 신학자인 켈티나 밀리텔로(Cettina Millitello)가 『전례에서의 평신도』(*I laici nella liturgia*)에 게재한 것이다. 그녀는 1975년에 시칠리아 신학부(팔레르모)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 후 교황청립 성 안셀모 대학의 상임 교수가 되었고, 다른 학술 센터에서 객원 교수를 지냈다. 현재는 교회의 평신도와 여성 문제를 다루는 “Costanza Scelfo” 연구소를 이끌고 있으며, 교황청립 마리아눔 대학의 ‘여성과 그리스도교’ 학과장을 맡고 있다.

1987년에 쓰인 이 글을 번역한 이유는 ‘시노달리타스’ 주제에서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평신도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개념이 전례적 차원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으며, 그 현실적 문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 때문이다.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1. 사제직으로의 부르심, 2. 전례 개혁에 대한 공의회 요청과 수용, 3. 개혁된 거행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전의 교회에서는 주로 ‘직무 사제직’이라고 하는 성직자 중심의 사제직을 언급했다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세례와 견진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일반 사제직’에 대한 신학적 기반을 분명히 한다. 이 개혁된 사제직에 대한 개념이 마찬가지로 개혁된 전례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큰 관건이었다. 그전에는 방관자나 관객에 불과했던 평신도의 전례에 능동적 참여를 요청받으며, 교회는 이런 요청에 대한 생태학적 여건을 전례에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더불어 개혁된 거행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강조한다.

하느님이 불러서 모인 공동체이기에 주례자인 사제를 포함하여 참여한 평신도를 지칭하는 ‘저희’(우리)라고 전례문에서 언급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로 형성된 ‘모임’과 ‘봉사’에 대한 인

식이 싹트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례문의 언급과 인식 변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역교회에서 일반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이 함께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시노달리타스의 원리가 의사결정과정, 실행, 그리고 평가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평신도, 사제직 수행, 일반 사제직, 전례에서의 평신도, 공의회.

